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9호 [루게 제24482호] 주제 103 (2014)년 3월 10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3월 9일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5호구제 43호분구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인 김경옥동지, 황병서동지, 김여정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대학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과시하고 공화국 정권을 반석같이 다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뜻깊게 맞이한 대학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휘날리고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불멸의 건국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필승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는 선거자들의 얼굴마다에는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부, 최고사령관부를 누리는 크나큰 영광과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정치대학에 도착하시자 경축의 춤바다를 펼치던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



이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선거장으로 향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조선인민군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선거표를 받으시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조선인민군 제855군부대 부대장 김광혁동무에게 투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의원후보자를 만나시어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의원후보자의 손을 뜨겁게 잡아 주시며 생애의 마지막시에 부대를 찾아주시었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순간도 잊지 말고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라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거를 마치신

다음 대학을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먼저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수습여차례의 현지도도를 받은 대학의 연혁사에 대하여 주의깊게 들어주시면서 인민군대를 사상의 강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바쳐오신 대원수님들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김일성정치대학은 지난 기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수많은 정치일군들을 양성해냄으로써 혁명무력강화발전애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시면서 대학이 쌓아올린 빛나는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김일성정치대학은 인민군대 정치일군양성의 최고전당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하시면서 김일성정치대학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긍지이고 자랑이며 대학의 연혁사는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영원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군건설에서 정치사상강군화를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고 하시면서 김일성정치대학은 정치사상강군건설의 담당자들을 키워내는 무겁고도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선 사상의 힘으로 승리해왔고 앞으로도 사상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학에서는 총대에 사상을 제우면 그 총대는 절대로 녹이 쓸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정치일군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전자도서관, 군인회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백두산총대로 우리의 혁명주권을 굳건히 지켜가리

제 111 호 백두산선거구 군인선거자들

2 면에서 계속

최지방의 심방어대를 비롯하여 명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찾아가시어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군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며 전군을 선군혁명의 길에서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부대, 전우부대로 건설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칼바람부는 화력진지와 비행장, 날바다를 헤가르는 군함우에서 군인들의 훈련을 지도하시며 우리 식의 신묘한 작전술적 명안들을 밝혀주시고 인민군대를 무적결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영상을 마음속으로 우리러며 그들은 충정의 한표로 바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무장으로 받들며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이어 우리 공화국을 백두산총대로 굳건히 수호해나갈 인민의 정권을 반석같이 다지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무적의 군력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갈 철의 의지가 비껴있었다.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을 우리러며 군인선거자들은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인민의 심장속에 억척같이 뿌리박은 참다운 인민의 주권을 더욱 빛내어

나갈 맹세를 다지였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인민의 정권을 반석같이 다지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무적의 군력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갈 철의 의지가 비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선거에 참가하여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정의

표를 올린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군인선거자들은 흥겹고 기백넘친 춤판을 펼쳐놓았다.

백두산혁명강군의 신념이 맥박치는 노래선봉에 맞추어 힘차게 발을 구르며 어깨를 들썩이는 군인선거자들의 회열에 넘친 모습과 예술공연들로 하여 선거장들의 분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조되었다.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서의 력사적인 선거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주제혁의 당군, 김정은혁명강군의 드림에 넘친 모습과 예술공연들로 하여 선거장들의 분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조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불패의 혁명주권 만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 전체 선거자들의 드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진행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인민공화국의 불패의 위용을 만천하에 파시하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가 9일에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혁명의 최고수위에 모시고 새로운 주제100년대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여온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이 승고한 공민적자각과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선거장들로 모여들었다.

함축색공화국기가 창공높이 휘날리는 전국의 모든 선거장에는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모질일색으로 단장된 선거장들과 그와 잇닿은 거리와 마을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불패의 혁명주권 만세!》, 《모두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자!》 등의 구호들과 선전화들이 나붙어있었으며 방송선전과 함께 다채로운 예술공연무대들이 펼쳐져 선거분위기를 높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선거자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을 선거함으로써 가장 우월한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힘써야 할것입니다.》

백두산출생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주인된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가장 우월한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반석같이 다지며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혁명적열정이 새차게 끓어치는 가운데 선거가 시작되었다.

절감하였기에 가렬한 전파의 나날 조국수호에 한몫 서슴없이 내맡기셨다고 하면서 찬성의 한표한표로 인민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공화국의 자주독립과 부강발전엔 한생애 바친 신의주시 동화동의 공화국영웅 장운하, 보통강구역 신원동의 로력영웅들인 김희순, 박춘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대의원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하였다.

삼일로독산물공장 로동자 김미향, 원산공업전문학교 학생 신정희를 비롯하여 은혜로운 공화국의 품속에서 자라나 처음으로 선거에 참가하는 세세대 청년들의 열의는 더욱 높았다.

그들은 인민의 대표들에게 찬성투표하여 우리 제도를 반석같이 다지는 데 이바지한 이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라고 하였다.

환희와 격정으로 들끓는 선거장을 군지에 넘쳐 바라보며 김책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혁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정권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명도밑에 우리 공화국정권은 세기를 이어 인민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있다.

세상에는 우리 공화국과 같이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며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적시책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가 없을것이다.

이 정권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는것을 실생활로 체험한 선거자들이기에 그들이 바치는 한표한표가 그대로 당과 국가의 고마운 은덕에 보답하려는 충정의 한표, 신념의

한표로 되고있는것이다.

선거포마다에 절세위인들의 명도로 빛나는 가장 존엄높고 우월한 혁명주권,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인민

모파 맘 다 바쳐 이 조선 받들리

우리 공화국은 진정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온 나라 전체 선거자들의 가슴마다에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우리 혁명주권을 굳건히 다지며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신념과 맹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제381호 평화선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개성시 판문점철동농장 작업반장 김성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대로 농사꾼의 자식인 나를 대의원후보자로 내세워준 본계연선선거자들에게는 내게를 언제나 명심하고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고마운 공화국정권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 적극 기여하겠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비롯하여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과 근로자들은 청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충하려는 애국의 마음들을 선거포마다에 담았다.

혁명주권을 굳건히 받들어야 할 열의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국가과학원, 평양도시설계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온 나라 지식인들의 가슴속에서도 용솟음쳤다.

그들은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과학연구사업과

의 부부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는 인민정권에 대한 감사의 정이 어려있어 온 나라의 선거열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조되었다.

모파 맘 다 바쳐 이 조선 받들리

인재양성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될 것들을 피력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 선군조선의 기상을 더 높이 떨쳐갈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의 목소리는 성강과 김철의 철강제생산지, 대안과 통성의 기계제작기, 순천과 북창의 탄전을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힘차게 울려나왔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직장장

전영일, 평양목재공장 작업반장 리병수, 풍서림산사업소 로동자 리경화는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영웅적로동계급의 전통을 뜻깊이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며 비명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갈 인민의 혁명적기상이런듯 온 나라의 선거장들에서는 《조국찬가》, 《내 나라 제일로 좋아》, 《하나의 대가정》 등의 노래가 푸른 하늘가로 메아리쳤다.

절세위인들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빛나는 김정은원수님에게, 당면건설의 목적을 성강과 김철의 철강제생산지, 대안과 통성의 기계제작기, 순천과 북창의 탄전을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힘차게 울려나왔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직장장 전영일, 평양목재공장 작업반장 리병수, 풍서림산사업소 로동자 리경화는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영웅적로동계급의 전통을 뜻깊이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며 비명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갈 인민의 혁명적기상이런듯 온 나라의 선거장들에서는 《조국찬가》, 《내 나라 제일로 좋아》, 《하나의 대가정》 등의 노래가 푸른 하늘가로 메아리쳤다.

선거의 하루를 보내는 전체 공민들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따라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과 최후승리의 날을 앞당겨갈 철석의 의지로 충만되어있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 인민적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 기여할 결의를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조국인민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갈 인민의 혁명적기상이런듯 온 나라의 선거장들에서는 《조국찬가》, 《내 나라 제일로 좋아》, 《하나의 대가정》 등의 노래가 푸른 하늘가로 메아리쳤다.

선거의 하루를 보내는 전체 공민들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따라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과 최후승리의 날을 앞당겨갈 철석의 의지로 충만되어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영원한 삶의 품 인민공화국

주체적정권건설에 획기적전환의 계기로 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에 참가한 전체 선거자들은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세우고 만대에 빛내주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흥미의 마음을 안고 선거에 참가하였다.

항일의 로투사들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인민혁명정부의 기발아래 훌륭한 유적구시절에 대한 따듯한 감회를 안고 선거장에 들어섰다.

제12호 서창선거구 제99호분구에서 투표한 항일혁명투사 박경숙은 인민의 새 나라를 세우시러 혈전만리를 헤쳐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이 백두의 산발들과 압록강 굽

이굽이에 력력히 어려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혁명정권의 고귀한 전통, 그 깊고도 만대에 빛내주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흥미의 마음을 안고 선거에 참가하였다.

항일의 로투사들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인민혁명정부의 기발아래 훌륭한 유적구시절에 대한 따듯한 감회를 안고 선거장에 들어섰다.



-제29호 대성선거구 제7호분구선거장에서- 본사기자 장성복 찍음

-제11호 련화선거구 제79호분구선거장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제9호 경산선거구 제6호분구선거장에서- 본사기자 김철우 찍음

찬성의 한표로 분출된 인민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심

강선의 전통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나가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적사랑에 기초하여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 여기에 바로 우리 사회정치적생태계의 본질과 비할바없는 우월성이 있다.》

천리마의 고향 강선!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대의원선거로 온 나라가 들끓고있는 속에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도 이어나침부러 명절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앞가슴에 훈장과 메달들을 달고 저마다 선거장으로 모여드는 사람들로 일글마다에는 우리의 혁명정신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주체의 내 조국을 길이 빛내

여갈 신념과 의지가 비껴있었다. 어찌 그렇지 않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시대의 선구자, 자력갱생의 강자들로 역세게 자라난 이꽃 로동계급이 아니던가.

뜨겁게 어려온다.

전후 그처럼 어렵던 시기 강선의 로동계급과 무릎을 마주하고 강재 1만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난국을 이어나가자고 뜨겁게 호소하시던 아버지수령님!

소극과 보수를 불사르며 6만능력의 분과업연기에서 12만

의 강재를 생산하던 강선의 기질, 강선의 본래는 그대로 강철 증산으로 우리의 당중앙을 경사 용위하고 내 조국의 강철기둥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갈 이꽃 로동계급의 불타는 총성과 불굴의 정신력의 표시였다.

강선의 력사는 오늘날 전하고 있다.

해방직후인 주제34(1945)년 10월부터 새 조국건설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단계에 이르는 천기간 무려 수십차례나 찾아오시어 이곳 로동계급을 불러일으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

어도 강선의 전통, 천리마의 정신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있을수 없다.

주제 97(2008)년 12월 24일 이곳 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화를 지퍼주신 위대한 장군님,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이 끊어온 나라가 들끓고 강선의 로동계급이 소리치며 내달려야 전국의 로동계급의 발걸음이 더 빨라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화를 세차게 지퍼올렸을 뜨겁게 호소하시던 때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끊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전정 아버지장군님의 그날의 현지지도는 전후 어려웠던 시기 아버지수령님께서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지퍼주셨던 그때와 같이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력사적사건이었다.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는 시대의 기발이 되고 불길이 되어 내달리던 강선의 1분1초는 그 대로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에 결사의 실천으로 보답할 이꽃 로동계급의 총성의 발걸음이었었고 기적과 위훈장조의 순간순간이

였으니 우리 다시 더듬어보자.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우리 식의 초고전력전기로를 훌륭히 일떠세운 자랑찬 성과속에,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이 도입된 현실속에 후더는 피마냥 끓어번지고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육원전에서 강선사람의 본분을 다하자!

수백년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어도 호려질수도 변할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강선의 공기, 강선의 습성, 강선의 생명과도 같았으니 지난해 당이 호소한 강재증산과제를 기현전에 수행하는 기적의 불길도 이곳 련합기업소에서 타올랐다.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대의원선거를 통해 주체조선의 존엄과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려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우리는 수령과 인민이 하나로 뭉쳐 일어난 힘은 핵폭탄보다 더 위험하다는 진리를 뼈에 새기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은 생산성과로 결사옹위해나가는 당의 믿음직한 강철전사로 삼며 투쟁해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이것은 련합기업소 직장장 정영일동무의 심정만이 아닌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모두의 한결같은 결의이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이어지는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총성, 투철한 혁명정신, 크나큰 믿음에 의해 강선의 노을은 영원히 붉게 타오를것이며 강선의 전통은 굳건히 계승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충섭
사진 본사기자 김준중

인민이 주인된 내 나라가 제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정권을 강화하는것은 곧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는 길이며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여기에 인민대중의 자주업무를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3월 9일, 뜻깊은 선거의 날을 맞으며 각지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알뜰중산으로 우리의 혁명정권을 반석같이 다질 일념으로 총성의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치였다.

태천군 은학동농동농장의 선거장이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대의원선거를 통해 주체조선의 존엄과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려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각지 농업근로자들 선거에 참가하고 출판에 들어선 일군들의 얼굴에도, 투표표 기다리는 농업근로자들의 얼굴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갈 결의가 넘쳐났다.

주제 98(2009)년 가을 농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농사를 잘 지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농동근로자들이 찬성의 한표를 바친 지랑과 무지를 안고 두벌농사포장으로 나왔다.

안주시 송학동농동농장의 선거장에 뜨거운 격정과 애국의 열의가 차넘치였다.

도와 군의 일군들도 선거장에 나왔다.

농업생산성과로 공화국공민의 본분을 다할 일념으로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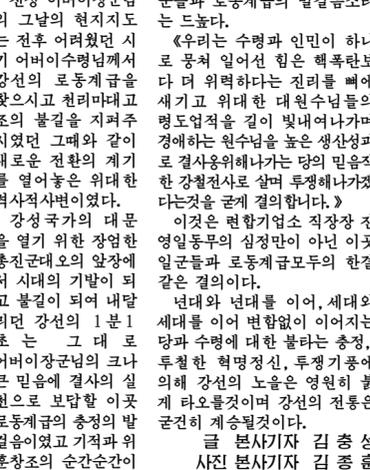
에 참가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지난해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장을 찾으시어 주신 과업명령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제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의 선거장도 주체조선의 존엄과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려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알뜰생산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낼 일념의 맹세를 다진 그들은 농장포장으로 나왔다.

각지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선거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김창길



—제 668호 청산선거구 제 46호분구선거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펼친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정치와 당을 어머니 품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들의 뜨거운 총성이 하나도 되어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의紐帶가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뜻깊은 선거의 날 새벽에도 먼동은 푸름푸름 조용히 더러었다.

수도의 한복판을 흐르는 대동강과 수천강물의 새 울음 품어안은 모란봉기슭은 마치 폐사로운 날인듯 고요하다.

이 이른새벽에 대낮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꽃잎이 설레이는 뜻이 있다.

선거장들이다.

경숙의 무대마냥 화려한 모습을 새색시름속에 감춘 각지의 선거장들에서는 사람들의 속삭임, 웅성거림이 끊임없이 울려나왔다.

우리가 보물문을 지나 만수대거리에 자리잡은 한 선거장에 다다랐을 때였다.

《할머니, 아들은 제가 다 나왔어요. 날에도 찬데 들어가보세요.》

한 젊은 여인이 백발의 로인에게 이렇게 권하고있었다.

로인은 빙그레 웃었다. 하면서도 비질만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느라였다.

《나도 선거장을 왔고 싶어서 그러래. 혹시 알겠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득 우리 선거장에 오실지.》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평범한 로인의 가슴속에 그렇듯 절절한 소원이 깃들여있었다. 어이 없었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전투에 높이 모시고 처음으로 진행되는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대의원선거를 뜻깊게 맞이할 공화국공민들의 불같은 열의의 밑바탕에는 다름아닌 우리 원수님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과 호모의 정이 끓어치고 있는것이였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스스로 총성의 한표, 애국의 한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수령님의 힘과 의지가 되는 말씀울 올린 태성할머니. 일심단결로 빛나는 우리 조국력사에 길이 남는 그 모습에 뜻깊은 이 새벽 선거장에 서서 만만 수 많은 공민들의 모습에서 비껴오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태성할머니의 심장속에 간직 되었던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애호와 호모심, 그가 지나오던 우리의 혁명정신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심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정령님! 이 새벽에 우리는 수 천수만의 태성할머니들을 만나본 심정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갈마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각지의 그 어느 선거장을 찾으시고 그 누구를 만나시어도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앞에 나섰던 어제의 태성할머니처럼 한결같은 목소리로 아뢰이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리는 원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인민정권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선거날의 새벽, 참으로 뜻깊은 새벽이다.

일심단결의 력사와 더불어 이 땅에 태어난 수천수만의 태성할머니들의 굳결한 모습에 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친 아름다운 새벽, 우리 나라에만 있는 숨겨진 새벽이다.

본사기자 허명숙

꽃송이들로 단장된 선거장마당에서는 선거자들이 줄줄이 음악에 맞추어 흥겨운 춤판을 펼치고있었다. 그런가하면 찬성의 한표를 바치고 나와 자기 이름이 올라있는 선거자명부를 다시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투표의 시각을 기다리며 기쁨에 넘쳐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선거장이 끝없는 환희로 설레이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당의 은성속에 솟아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원에서 만복을 누리고있는 교육자들, 그들의 가족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일성종합대학 력학부 강령장 공훈과학자, 교수, 박사 리영성동무는 선거표를 받아 들었을 때 참으로 생각이 많았다. 내가 정말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성속에 희환한 살림집을 받아안고 총정과 보탬의 길을 구부로 달리고있는가 하고 생각하니 송구스러움의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찬성의 한표를 바친 공민의 한사람으로 사당의 령도아래 비약하는 조국을 위해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 더 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던 우리는 찬성의 한표를 바치고 선거장에서 나오는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 교원 김철기동무도 만나 소감을 들어보았다.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이 심정을 정말이지 무엇이라 표현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한표, 총성의 한표를 드리는 심정으로 투표에 참가하였습니다. 저 모습들을 보십시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에 오늘도 총지만 우리 앞날은 더 밝고 창창하다는 확신이 얼골마다에, 출가락마다에 어찌있지 않습니까. 일심단결의 대의원을 더욱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전정전정적으로 옹유하는 당의 붉은 정수분자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데 모든 힘

을 다 바치겠다는것이 뜻깊은 선거날에 다지는 저의 결심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재료연구소 소장인 김정일상계판인, 로력영웅,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 김삼옥동무의 이야기 역시 심금을 울리었다.

《해방전 제주도 서귀포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 나무도 가난에 쪼들려 죽을 결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역방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막바지 인생에서 해마다 저를 따듯이 안아 자그마한 재능의 싹도 귀중히 여겨 품어주시어 주고 애국의 한결로 관바로 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 있어 값없는 삶의 최정점에 오를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생의 끝까지 위대한 삶의 품을 받들어 공화국공민의 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내 나라를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진정 끝없는 환희로 끓어번지는 선거장에서 만났노는 선거자들마다 리놓는 격정은 이렇듯 하나같았다.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 그 품에선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리.》

글 본사기자 백성근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말씀을 듣고있었다. 그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러면서 희환한 보금자리에서 푸른 선거장이어서 더욱 꽃길게 안겨온다고, 오늘의 환희를 언제나 잊지 않고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를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나라를 빛내기 위해 창원 애국의 자옥을 수놓아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선거장앞마당의 출판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뛰어오르며 오늘의 환희를 흥겨운 참가락에 실고있었다.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던 우리는 찬성의 한표를 바치고 선거장에서 나오는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 교원 김철기동무도 만나 소감을 들어보았다.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이 심정을 정말이지 무엇이라 표현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한표, 총성의 한표를 드리는 심정으로 투표에 참가하였습니다. 저 모습들을 보십시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에 오늘도 총지만 우리 앞날은 더 밝고 창창하다는 확신이 얼골마다에, 출가락마다에 어찌있지 않습니까. 일심단결의 대의원을 더욱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전정전정적으로 옹유하는 당의 붉은 정수분자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데 모든 힘

선거의 날 새벽에

표를 바친 선거장을 정히 꾸리었고 선거장 주변에 티 한점이라도 있을새라 알뜰하게 거두어왔다.

그렇듯 하루하루 손잡아 가다린 뜻깊은 선거날이 왔으니 그들이 어찌 이 새벽을 조용히 맞을수 있랴.

앞서 찾았던 선거장들의 평평도 되새겨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거장을 찾으시던 그때와도 향기로운 꽃다발을 안고 온 중년부부들, 흥얼거리며, 손잡고 없이 푸른 선거장이지만 속 미움없는 점이 있을새라 또다시 꽃송이들을 아낌없이 안고 온 청년남녀들.

선거장마다에 넘치던 감동은 그 화폭을 돌이켜보느라니 문득 떠오르는 모습이 있다.

우리 수령님 한생 잊지 못할 신 태성할머니의 모습이다.

수십년 전 선거장에서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었고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수령님의 힘과 의지가 되는 말씀울 올린 태성할머니. 일심단결로 빛나는 우리 조국력사에 길이 남는 그 모습에 뜻깊은 이 새벽 선거장에 서서 만만 수 많은 공민들의 모습에서 비껴오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태성할머니의 심장속에 간직 되었던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애호와 호모심, 그가 지나오던 우리의 혁명정신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심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정령님! 이 새벽에 우리는 수 천수만의 태성할머니들을 만나본 심정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갈마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각지의 그 어느 선거장을 찾으시고 그 누구를 만나시어도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앞에 나섰던 어제의 태성할머니처럼 한결같은 목소리로 아뢰이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리는 원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인민정권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선거날의 새벽, 참으로 뜻깊은 새벽이다.

일심단결의 력사와 더불어 이 땅에 태어난 수천수만의 태성할머니들의 굳결한 모습에 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친 아름다운 새벽, 우리 나라에만 있는 숨겨진 새벽이다.

본사기자 허명숙

꽃송이들로 단장된 선거장마당에서는 선거자들이 줄줄이 음악에 맞추어 흥겨운 춤판을 펼치고있었다. 그런가하면 찬성의 한표를 바치고 나와 자기 이름이 올라있는 선거자명부를 다시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투표의 시각을 기다리며 기쁨에 넘쳐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선거장이 끝없는 환희로 설레이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당의 은성속에 솟아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원에서 만복을 누리고있는 교육자들, 그들의 가족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일성종합대학 력학부 강령장 공훈과학자, 교수, 박사 리영성동무는 선거표를 받아 들었을 때 참으로 생각이 많았다. 내가 정말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성속에 희환한 살림집을 받아안고 총정과 보탬의 길을 구부로 달리고있는가 하고 생각하니 송구스러움의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찬성의 한표를 바친 공민의 한사람으로 사당의 령도아래 비약하는 조국을 위해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 더 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던 우리는 찬성의 한표를 바치고 선거장에서 나오는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 교원 김철기동무도 만나 소감을 들어보았다.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이 심정을 정말이지 무엇이라 표현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한표, 총성의 한표를 드리는 심정으로 투표에 참가하였습니다. 저 모습들을 보십시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에 오늘도 총지만 우리 앞날은 더 밝고 창창하다는 확신이 얼골마다에, 출가락마다에 어찌있지 않습니까. 일심단결의 대의원을 더욱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전정전정적으로 옹유하는 당의 붉은 정수분자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데 모든 힘

을 다 바치겠다는것이 뜻깊은 선거날에 다지는 저의 결심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재료연구소 소장인 김정일상계판인, 로력영웅,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 김삼옥동무의 이야기 역시 심금을 울리었다.

《해방전 제주도 서귀포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 나무도 가난에 쪼들려 죽을 결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역방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막바지 인생에서 해마다 저를 따듯이 안아 자그마한 재능의 싹도 귀중히 여겨 품어주시어 주고 애국의 한결로 관바로 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 있어 값없는 삶의 최정점에 오를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생의 끝까지 위대한 삶의 품을 받들어 공화국공민의 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내 나라를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진정 끝없는 환희로 끓어번지는 선거장에서 만났노는 선거자들마다 리놓는 격정은 이렇듯 하나같았다.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 그 품에선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리.》

글 본사기자 백성근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말씀을 듣고있었다. 그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러면서 희환한 보금자리에서 푸른 선거장이어서 더욱 꽃길게 안겨온다고, 오늘의 환희를 언제나 잊지 않고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를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나라를 빛내기 위해 창원 애국의 자옥을 수놓아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선거장앞마당의 출판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뛰어오르며 오늘의 환희를 흥겨운 참가락에 실고있었다.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던 우리는 찬성의 한표를 바치고 선거장에서 나오는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 교원 김철기동무도 만나 소감을 들어보았다.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이 심정을 정말이지 무엇이라 표현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한표, 총성의 한표를 드리는 심정으로 투표에 참가하였습니다. 저 모습들을 보십시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에 오늘도 총지만 우리 앞날은 더 밝고 창창하다는 확신이 얼골마다에, 출가락마다에 어찌있지 않습니까. 일심단결의 대의원을 더욱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전정전정적으로 옹유하는 당의 붉은 정수분자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데 모든 힘

을 다 바치겠다는것이 뜻깊은 선거날에 다지는 저의 결심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재료연구소 소장인 김정일상계판인, 로력영웅,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 김삼옥동무의 이야기 역시 심금을 울리었다.

《해방전 제주도 서귀포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 나무도 가난에 쪼들려 죽을 결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역방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막바지 인생에서 해마다 저를 따듯이 안아 자그마한 재능의 싹도 귀중히 여겨 품어주시어 주고 애국의 한결로 관바로 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 있어 값없는 삶의 최정점에 오를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생의 끝까지 위대한 삶의 품을 받들어 공화국공민의 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내 나라를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진정 끝없는 환희로 끓어번지는 선거장에서 만났노는 선거자들마다 리놓는 격정은 이렇듯 하나같았다.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 그 품에선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리.》

글 본사기자 백성근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을 선출

아침일찍부터 선거분위기로 들끓고있었다.

백두산기슭의 해산시와 서해방안 신의주, 평성시의 선거자들은 우리 인민정권을 반석같이 다지는 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찬성의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치였다.

9일, 온 나라의 선거장들은 백두산기슭에 사는 공지와안고

《나는 우리 대의원후보자가 위대한 장군님을 뵈기까지 만나 소식을 영망의 기쁨활영을 한 소식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사령부의 영원한 초병이 되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선거분구일군의 그 말에 전정로병이 박사, 부교수인 김정숙사범대학 도서관 사서 최윤하동무가 이렇게 덧붙이였다.

《백두산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지켜가고있는 녀성일군을 인민의 대표로 선거하였으니 이보다 더 기쁜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저저마다 그 말에 호응하였다.

어찌 그렇지 않랴.

언제나 혁명의 성지 백두산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 사는 우리 인민들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업무를 백두산형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아래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총성과 불타는 결의가 조국의 북변 압록

음으로 찬성의 한표를 바쳤습니다.》

제 84호 오리선거구 제 60호 분구선거장에서 만난 도농촌 경리위원의 총재판리소 소장 김창철동무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백두산형들의 뜻을 이어가서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다시한번 과시하는 뜻깊은 계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업무를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뜻깊은 마음이 높이 펼쳐진 환희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우리 혁명정권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데 저의 모든것을 다 바쳐겠습니다.》

이런 불타는 결의들은 환희에 넘쳐 흥겨운 춤바다를 펼쳐진 시인의 다른 선거장에서도 울려나왔다.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춤바

떨쳐진 선거장에서 평성시 은덕 1동 62인민반 리명춘동무는 우리에게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말하였다.

《모두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넘쳐있는 우리의 선거날을 저 아버지들의 우리에서 상상이나 할수 있었습니까. 정말이지 우리 인민정권이 제일이고 우리 생활이 제일입니다.》

《이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업무를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뜻깊은 마음이 높이 펼쳐진 환희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우리 혁명정권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데 저의 모든것을 다 바쳐겠습니다.》

이런 불타는 결의들은 환희에 넘쳐 흥겨운 춤바다를 펼쳐진 시인의 다른 선거장에서도 울려나왔다.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춤바

그의 얼굴에는 고마운 이 제도를 위해 몸과 마음 다 바쳐갈 굳은 결의가 어려있었다.

우리의 혁명정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이들의 심정만이 아닌 나라 천만민민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변함없는 의지이다.

특파기자 리혁철

기대되고기대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이 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 230호 친선선거구 제 89호 분구선거장은 경숙분위기로 끓어번졌다.

선거장은 공화국기발과 꽃송이들로 단장되어 선거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이곳 분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에 참가하고있는 선거자들의 열의는 매우 높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선거를 마치고 나온 선거자들이 얼마나

기대되고기대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이 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 230호 친선선거구 제 89호 분구선거장은 경숙분위기로 끓어번졌다.

선거장은 공화국기발과 꽃송이들로 단장되어 선거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이곳 분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에 참가하고있는 선거자들의 열의는 매우 높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선거를 마치고 나온 선거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다음 선거장으로 향하느라 도로에 나서니 대학생 취주대와 근로청년취주대를 태운 자동차행렬이 취주악을 울리면서 거리를 달리고있었다. 선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민들의 기쁨에 넘친 모습도 보였다.

거리와 마을 그 어디나 경숙분위기에 휩싸여있었고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웃음이 한껏 어려있었다.

우리가 들은 력민기계련합기업소와 신의주지방공공장을 비롯하여 시안의 여러 선거장들도 환희에 넘쳐있었다.

그 기쁨은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우리의 혁명정권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불같은 열의의 뜨거운 분출이었다.

이번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신의주시의 전체 선거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에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거이어 부강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 결의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었다.

특파기자 송창윤

우리 공화국정권은 영원토록 불패의 위력을 떨칠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에 참가한 해외동포들의 반향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9일 조국인민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였다.

조국방문의 나날에 경사스러운 선거의 날을 맞이한 해외동포들은 제18호 보통선거구 제7호분구에서 투표하였다.

찬성의 한표를 바치고 선거장을 나서는 그들의 열광마더는 주체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강위력한 공화국의 해외공민들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어려웠다.

해외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공화국정권을 반석같이 다져나가려는 조국인민들의 드넓은 열의속에 진행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에 참가한것은 커다란 영광으로 된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제일동포 배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서 조국인민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가하니 이인위권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되새겨져 격정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께서는 우리 공화국정권을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주시는 이렇듯 인민적인 주권, 인민의 제도는 없다.

하기에 조국인민들은 사회주의 건설투쟁의 휘황찬란한 패기를 확신있게 내다보며 승리에 대한 신심과 학연에 넘쳐 살며 투쟁하고있는 것이다. 오늘의 이 뜻깊은 선거장에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긍지를 다시금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우리 공화국정권은 영원토록 불패의 위력을 떨칠 것이다.

제일동포 리화선은 모든 선거자들이 애국의 한표를 바쳐가는 모습을 보니 감동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며 화복한 하나의 대가정, 일심단결의 성세를 이루고 보다 밝고 휘황찬란한 패일을 향해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조국의 벽천현실이 이 선거장에 그대로 비쳐있는 것 같다. 조국인민들과 한데 어울려 출도 추며 뜻깊은 이날을 경축하니 정말 기분이 상쾌하다고 말하였다.

제일동포 고영룡은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이번 선거가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과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는 훌륭한 계기로 된다고 본다.

체류기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가시는 참다운 인민사랑의 정치와 사회주의조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자기의 생활상을 통하여 심장으로 실감한 우리들이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모범을 펼쳐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위대한 어머니로 높이 모시었기에 우리 인민은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것이다.

지금 우리의 가슴가슴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제정동포 김승걸은 조국체류기간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한 감격과 기쁨을 무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지었다.

절세위인의 명도따라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있는 자부심을 안고 선거에 참가한 조국인민들의 희열에 참된 모습은 정말 감

동적이다. 선거자들 모두가 흥겹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뜻깊은 이날을 경축하고있는 이런 화한 모습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열광마더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주고 빛내여주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참다운 인민의 주권에서 자주적인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기쁨과 희열이 한껏 넘쳐있다.

저 노래소리, 웃음소리는 앞으로 조국인민들의 최후승리의 만세소리로 온 세상에 울려퍼져 메아리칠것이다. 사회주의제도가 바로 근로인민대중의 참된 삶과 운명의 전부이며 영원한 미래라는 것을 심장으로 실감하였다.

제정동포 김영옥은 공화국정권을 강화하는 길에 인민의 무궁무진성이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찬성의 한표를 바치고 기쁨에 넘쳐있는 선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팔았어 빛내이며 공화국공민의 본분을 다하여 인민정권을 반석같이 다져나가려는 조국인민들의 의지가 얼마나 굳센가를 깊이 느꼈다.

진정 회색의 천황명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조국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행복과 미래를 담보해주는 참다운 삶의 요람이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것이다.



—제18호 보통선거구 제7호분구선거장에서— 본사기자 림 학락 찍음

조선의 선거제도는 참으로 우월하다

외국순넵들 평양시안의 선거장들을 참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평양시내 선거장들을 9일 주조 하이제리아, 몽골, 영국, 인도네시아대사관 성원들과 중국, 노르웨이, 스페인, 이탈리아 등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순넵들이 참관하였다.

제9호 경성선거구 제9호분구, 제12호 서창선거구 제87호분구, 제13호 평천선거구 제38호분구, 제17호 새마을선거구 제153호분구를 비롯한 여러 선거장들을 찾은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갈 열의에 넘쳐 찬성하는 한편, 애국의 한표를 바치는 선거자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외국순넵들은 대의원후보자들보다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은 참관을 마치고 노르웨이 트라 비크에회사 사장 모르텐 트라 비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거장을 참관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조선의 선거제도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의 정사를 논하는 대의원으로 될수 있다는 데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인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는 조선의 선거제도는 참으로 우월하다.

조선의 선거제도를 서방사람들에게도 알려주었다.

이탈리아 이엘코기기술대표단 성원 부루베오 미켈은 이렇게 토로하였다.

선거장을 참관하면서 인상이 깊었다. 흥겨운 춤과 벌어진 찬성하는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치는 선거자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외국순넵들은 대의원후보자들보다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은 참관을 마치고 노르웨이 트라 비크에회사 사장 모르텐 트라

비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거장을 참관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조선의 선거제도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의 정사를 논하는 대의원으로 될수 있다는 데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인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는 조선의 선거제도는 참으로 우월하다.

조선의 선거제도를 서방사람들에게도 알려주었다.

이탈리아 이엘코기기술대표단 성원 부루베오 미켈은 이렇게 토로하였다.

선거장을 참관하면서 인상이 깊었다. 흥겨운 춤과 벌어진 찬성하는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치는 선거자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외국순넵들은 대의원후보자들보다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은 참관을 마치고 노르웨이 트라 비크에회사 사장 모르텐 트라

비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거장을 참관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조선의 선거제도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의 정사를 논하는 대의원으로 될수 있다는 데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인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는 조선의 선거제도는 참으로 우월하다.

조선의 선거제도를 서방사람들에게도 알려주었다.

이탈리아 이엘코기기술대표단 성원 부루베오 미켈은 이렇게 토로하였다.

선거장을 참관하면서 인상이 깊었다. 흥겨운 춤과 벌어진 찬성하는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치는 선거자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외국순넵들은 대의원후보자들보다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은 참관을 마치고 노르웨이 트라 비크에회사 사장 모르텐 트라



—제12호 서창선거구 제87호분구선거장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조선민족의 자주적권리를 유린하는 악의 제국 주제넘은 참견, 심술궂은 처사

미국이 북조선에 개입할 수 없다

세계무대에서 미국민권 인권에 대하여 요란스레 떠들어대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결말하면 인권문제를 들고나와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정치압력과 위협을 가하여 지어 제제소동까지 벌리는 등 《인권제관관》 행세를 하고있다. 열 마저에도 미국무장관 케리는 《인권》이니 뭐니 하며 우리 공화국을 악의에 찬서 힐끔으며 국도의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미국은 인권문제를 운운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사실상 세계최대의 인권유린범제국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남조선에서만 놓고보자.

미국이 70년이 되어오도록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전쟁을 가로막고있을뿐 아니라 조국인민들에게 해악을 행하고 고통을 들이치고있는 그 자체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범제국이다.

남조선에 대한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주권침해의 극치이다.

미국이 70년이 되어오도록 남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을뿐 아니라 조국인민들에게 해악을 행하고 고통을 들이치고있는 그 자체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범제국이다.

남조선에 대한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주권침해의 극치이다.

미국이 70년이 되어오도록 남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을뿐 아니라 조국인민들에게 해악을 행하고 고통을 들이치고있는 그 자체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범제국이다.

세계무대에서 미국민권 인권에 대하여 요란스레 떠들어대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결말하면 인권문제를 들고나와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정치압력과 위협을 가하여 지어 제제소동까지 벌리는 등 《인권제관관》 행세를 하고있다. 열 마저에도 미국무장관 케리는 《인권》이니 뭐니 하며 우리 공화국을 악의에 찬서 힐끔으며 국도의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미국은 인권문제를 운운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사실상 세계최대의 인권유린범제국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남조선에서만 놓고보자.

미국이 70년이 되어오도록 남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을뿐 아니라 조국인민들에게 해악을 행하고 고통을 들이치고있는 그 자체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범제국이다.

남조선에 대한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주권침해의 극치이다.

미국이 70년이 되어오도록 남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을뿐 아니라 조국인민들에게 해악을 행하고 고통을 들이치고있는 그 자체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범제국이다.

세계무대에서 미국민권 인권에 대하여 요란스레 떠들어대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결말하면 인권문제를 들고나와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정치압력과 위협을 가하여 지어 제제소동까지 벌리는 등 《인권제관관》 행세를 하고있다. 열 마저에도 미국무장관 케리는 《인권》이니 뭐니 하며 우리 공화국을 악의에 찬서 힐끔으며 국도의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미국은 인권문제를 운운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사실상 세계최대의 인권유린범제국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남조선에서만 놓고보자.

미국이 70년이 되어오도록 남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을뿐 아니라 조국인민들에게 해악을 행하고 고통을 들이치고있는 그 자체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범제국이다.

남조선에 대한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주권침해의 극치이다.

미국이 70년이 되어오도록 남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을뿐 아니라 조국인민들에게 해악을 행하고 고통을 들이치고있는 그 자체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범제국이다.

세계무대에서 미국민권 인권에 대하여 요란스레 떠들어대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결말하면 인권문제를 들고나와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정치압력과 위협을 가하여 지어 제제소동까지 벌리는 등 《인권제관관》 행세를 하고있다. 열 마저에도 미국무장관 케리는 《인권》이니 뭐니 하며 우리 공화국을 악의에 찬서 힐끔으며 국도의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미국은 인권문제를 운운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사실상 세계최대의 인권유린범제국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남조선에서만 놓고보자.

미국이 70년이 되어오도록 남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을뿐 아니라 조국인민들에게 해악을 행하고 고통을 들이치고있는 그 자체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범제국이다.

남조선에 대한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주권침해의 극치이다.

미국이 70년이 되어오도록 남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을뿐 아니라 조국인민들에게 해악을 행하고 고통을 들이치고있는 그 자체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범제국이다.

세계무대에서 미국민권 인권에 대하여 요란스레 떠들어대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결말하면 인권문제를 들고나와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정치압력과 위협을 가하여 지어 제제소동까지 벌리는 등 《인권제관관》 행세를 하고있다. 열 마저에도 미국무장관 케리는 《인권》이니 뭐니 하며 우리 공화국을 악의에 찬서 힐끔으며 국도의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미국은 인권문제를 운운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사실상 세계최대의 인권유린범제국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남조선에서만 놓고보자.

미국이 70년이 되어오도록 남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을뿐 아니라 조국인민들에게 해악을 행하고 고통을 들이치고있는 그 자체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범제국이다.

남조선에 대한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주권침해의 극치이다.

미국이 70년이 되어오도록 남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을뿐 아니라 조국인민들에게 해악을 행하고 고통을 들이치고있는 그 자체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범제국이다.

세계무대에서 미국민권 인권에 대하여 요란스레 떠들어대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결말하면 인권문제를 들고나와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정치압력과 위협을 가하여 지어 제제소동까지 벌리는 등 《인권제관관》 행세를 하고있다. 열 마저에도 미국무장관 케리는 《인권》이니 뭐니 하며 우리 공화국을 악의에 찬서 힐끔으며 국도의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미국은 인권문제를 운운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사실상 세계최대의 인권유린범제국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남조선에서만 놓고보자.

미국이 70년이 되어오도록 남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을뿐 아니라 조국인민들에게 해악을 행하고 고통을 들이치고있는 그 자체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범제국이다.

남조선에 대한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주권침해의 극치이다.

미국이 70년이 되어오도록 남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을뿐 아니라 조국인민들에게 해악을 행하고 고통을 들이치고있는 그 자체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범제국이다.

세계무대에서 미국민권 인권에 대하여 요란스레 떠들어대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결말하면 인권문제를 들고나와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정치압력과 위협을 가하여 지어 제제소동까지 벌리는 등 《인권제관관》 행세를 하고있다. 열 마저에도 미국무장관 케리는 《인권》이니 뭐니 하며 우리 공화국을 악의에 찬서 힐끔으며 국도의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미국은 인권문제를 운운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사실상 세계최대의 인권유린범제국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남조선에서만 놓고보자.

미국이 70년이 되어오도록 남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을뿐 아니라 조국인민들에게 해악을 행하고 고통을 들이치고있는 그 자체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범제국이다.

남조선에 대한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주권침해의 극치이다.

미국이 70년이 되어오도록 남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을뿐 아니라 조국인민들에게 해악을 행하고 고통을 들이치고있는 그 자체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범제국이다.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비렬한 책동

최근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비렬한 책동이 있다. 이는 미국의 공공지에 있는 《R-16》 전투폭격기 12대를 남조선에, 미대선양함대에 소속되어 있던 핵항공모함을 조선반도를에 띄우려고 하고있는 미태평양함대에 증강배비태에 대한 계획들을 공개하며 정세를 긴장시켰다.

열 마저에는 핵전략참수합의 60%이상을 태평양에 집중배치하고있는데 대해 떠들며 이것이 조선 위협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은 북남상이 풀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대해 《일시적유류》 이라느니, 《이런 유류공과가 계속될지는 의문》 이라느니 하며 위협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은 북남상이 풀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대해 《일시적유류》 이라느니, 《이런 유류공과가 계속될지는 의문》 이라느니 하며 위협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최근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비렬한 책동이 있다. 이는 미국의 공공지에 있는 《R-16》 전투폭격기 12대를 남조선에, 미대선양함대에 소속되어 있던 핵항공모함을 조선반도를에 띄우려고 하고있는 미태평양함대에 증강배비태에 대한 계획들을 공개하며 정세를 긴장시켰다.

열 마저에는 핵전략참수합의 60%이상을 태평양에 집중배치하고있는데 대해 떠들며 이것이 조선 위협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은 북남상이 풀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대해 《일시적유류》 이라느니, 《이런 유류공과가 계속될지는 의문》 이라느니 하며 위협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은 북남상이 풀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대해 《일시적유류》 이라느니, 《이런 유류공과가 계속될지는 의문》 이라느니 하며 위협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최근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비렬한 책동이 있다. 이는 미국의 공공지에 있는 《R-16》 전투폭격기 12대를 남조선에, 미대선양함대에 소속되어 있던 핵항공모함을 조선반도를에 띄우려고 하고있는 미태평양함대에 증강배비태에 대한 계획들을 공개하며 정세를 긴장시켰다.

열 마저에는 핵전략참수합의 60%이상을 태평양에 집중배치하고있는데 대해 떠들며 이것이 조선 위협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은 북남상이 풀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대해 《일시적유류》 이라느니, 《이런 유류공과가 계속될지는 의문》 이라느니 하며 위협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은 북남상이 풀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대해 《일시적유류》 이라느니, 《이런 유류공과가 계속될지는 의문》 이라느니 하며 위협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최근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비렬한 책동이 있다. 이는 미국의 공공지에 있는 《R-16》 전투폭격기 12대를 남조선에, 미대선양함대에 소속되어 있던 핵항공모함을 조선반도를에 띄우려고 하고있는 미태평양함대에 증강배비태에 대한 계획들을 공개하며 정세를 긴장시켰다.

열 마저에는 핵전략참수합의 60%이상을 태평양에 집중배치하고있는데 대해 떠들며 이것이 조선 위협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은 북남상이 풀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대해 《일시적유류》 이라느니, 《이런 유류공과가 계속될지는 의문》 이라느니 하며 위협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은 북남상이 풀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대해 《일시적유류》 이라느니, 《이런 유류공과가 계속될지는 의문》 이라느니 하며 위협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최근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비렬한 책동이 있다. 이는 미국의 공공지에 있는 《R-16》 전투폭격기 12대를 남조선에, 미대선양함대에 소속되어 있던 핵항공모함을 조선반도를에 띄우려고 하고있는 미태평양함대에 증강배비태에 대한 계획들을 공개하며 정세를 긴장시켰다.

열 마저에는 핵전략참수합의 60%이상을 태평양에 집중배치하고있는데 대해 떠들며 이것이 조선 위협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은 북남상이 풀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대해 《일시적유류》 이라느니, 《이런 유류공과가 계속될지는 의문》 이라느니 하며 위협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은 북남상이 풀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대해 《일시적유류》 이라느니, 《이런 유류공과가 계속될지는 의문》 이라느니 하며 위협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최근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비렬한 책동이 있다. 이는 미국의 공공지에 있는 《R-16》 전투폭격기 12대를 남조선에, 미대선양함대에 소속되어 있던 핵항공모함을 조선반도를에 띄우려고 하고있는 미태평양함대에 증강배비태에 대한 계획들을 공개하며 정세를 긴장시켰다.

열 마저에는 핵전략참수합의 60%이상을 태평양에 집중배치하고있는데 대해 떠들며 이것이 조선 위협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은 북남상이 풀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대해 《일시적유류》 이라느니, 《이런 유류공과가 계속될지는 의문》 이라느니 하며 위협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은 북남상이 풀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대해 《일시적유류》 이라느니, 《이런 유류공과가 계속될지는 의문》 이라느니 하며 위협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최근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비렬한 책동이 있다. 이는 미국의 공공지에 있는 《R-16》 전투폭격기 12대를 남조선에, 미대선양함대에 소속되어 있던 핵항공모함을 조선반도를에 띄우려고 하고있는 미태평양함대에 증강배비태에 대한 계획들을 공개하며 정세를 긴장시켰다.

열 마저에는 핵전략참수합의 60%이상을 태평양에 집중배치하고있는데 대해 떠들며 이것이 조선 위협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은 북남상이 풀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대해 《일시적유류》 이라느니, 《이런 유류공과가 계속될지는 의문》 이라느니 하며 위협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은 북남상이 풀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대해 《일시적유류》 이라느니, 《이런 유류공과가 계속될지는 의문》 이라느니 하며 위협한다. 한편으로는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주변에 들이밀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